우리 악기 샅샅이 살펴보자

인천예술고, 진로교육 콘서트

인천예술고등학교(교장 심영란)는 지난 11월 4일 청예원에서 진로교육 특강 '이쌤의 풍당 국악-우리 악기 뿌아보기'라는 주제로 진로교육 콘서트를 열었다.

예술가의 꿈을 갖고 입학한 인천예고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재) 국악방송 한류 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제작 총감독인 해금연주자 이건명의 진로특강과 함께 국악교육 애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뿌아보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 순서로 2016년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을 받은 창작 음악그룹 원(ONE, 대표 정준규)의 콘서트가 진행됐다.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에서 개발한 국악교육 애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뿌아보기'는 순우리말인 '뿌아보다(샅샅이 살펴본다)'라는 뜻에 걸맞게, 2014년부터 가야금, 피리, 북을 시작으로 해금과 올해 출시 예정인 장구에 이르기까지 매년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한 내용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진로교육 콘서트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국악 공연과 함께 무대를 쓰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

예술가를 꿈꾸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무대에 함께 함으로써, 용기를 갖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무엇보다 클래식 위주의 교육 과정에 있는 인천예술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함께 연주할 기회를 갖기 위해,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세미 학생이 작곡한 아리랑 변주곡이 무대에 올려져 더욱 뜻깊었다.

인용섭 기자 ays@

친구야! 내 사과를 받아줘

갈산중, 애플데이(Apple-Day)운영

갈산중학교(교장 김성수)는 11월 4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과와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애플데이'(Apple day, 사과와 화해의 날)를 운영했다.

애플데이(Apple day)는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정해졌으며 Wee 클래스 상담실과 또래 상담자 학생이 주축이 돼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학생회, 솔리언 또래 학생들이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 전교생에게 알리고, 학급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사과의 엽서를 써서 Wee 클래스 앞 우체통에 넣으면 '사과와 엽서'를 '애플데이' 당일에 솔리언 동아리 학생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서로 화해할 수 계기가 생겨 용기가 났고,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수 교장은 "갈산중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소한 오해나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털어낼 뿐 아니라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건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학부모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인천송천고, 교육과정 설명회

인천송천고등학교(교장 손근섭)는 2017학년도 예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송천고 교육과정과 2020 대입 전형 및 송천고의 진로 진학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진로 설계의 필요성과 관련해 대입 전형의 변화와 변화된 초연결사회의 인재상을 제시했고, 이에 따른 2017 송천고 신입생에 해당하는 4트랙 교과탐구 교육과정, 진로 독서 교육, 송천 교과별 대회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참여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아울러 과정 중심 평가에 따라 수업-평가-대회-기록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교과교육, 창의융합·지역연계의 봉사활동·예술 체육 교육 등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교 활동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다.

이날 사리울중, 동방중, 고잔중, 논현중, 논곡중, 인천중학교 등 인근 학교의 학부모는 "설명회를 통해 자녀의 진로 계획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근섭 교장은 "송천고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대입 전형과 진로·진학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용섭 기자 ays@

인천정보산업고 정헌섭 학생 지역인재 9급 전기직 공무원 합격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교장 이선용)에서는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전기직 공무원 채용' 합격자 최종발표에서 3학년 정헌섭 학생이 합격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은 학력보다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 도입됐으며 선발자들의 업무 능력이 호평을 받으면서 채용 규모도 2012년 104명에서 올해는 159명까지 늘어났다.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 후, 내년 4월 정부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거쳐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번에 합격한 3학년 정헌섭 학생은 9급 전기직 공무원 합격을 위해 1학년 때부터 꾸준한 내신관리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신장해왔으며 전기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3학년 여름방학 중 인터넷 강의 청강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 응시 과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고, 개학 후 두 달간 학교 산학협력부 NCS기반 직업진로지원센터에서 담임교사 및 취업담당교사들과 체계적으로 모의면접 교육을 받았으며 인천JST일자리지원본부 지원으로 모의면접 특강을 듣는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선용 교장은 "이번 3학년 정헌섭 학생의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은 학생 개인의 꾸준한 노력뿐만 아니라 NCS에 기반을 둔 직업기초능력 신장을 위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모든 교사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 정헌섭 학생이 재학 3년간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결실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 앞으로도 고졸 취업 분야에서 이러한 쾌거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인용섭 기자 ays@

소통하는 가족, 두터워지는 가족사랑

삼산중, 행복 플러스 가족 핸드페인팅

삼산중학교(박승순 교장)는 11월 5일 효 체험 중심학교 및 교육복지활동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핸드페인팅을 실시했다. 학생과 그 가족 6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가족의 캐릭터를 만들어 머그잔과 접시에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산중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효 중심학교' 사업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여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으며 그 교육적 효과 또한 매우 컸다.

가족만을 위한 것들을 표현하며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작품을 만들어 갔다. 작품이 모두 완성되기도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만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오롯이 느꼈다.

학생들은 토요일임에도 시간을 함께한 자신의 부모·형제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이 함께 한다는 기쁜 마음에 연신 즐거운 표정으로 활동했다. 이번 활동으로 의기소침해 했던 학생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향상됐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다.

박승순 교장은 "삼산중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가족 간 소통의 장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두터워져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습캠프 실시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은 11월 12일 북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및 학부모 40여명을 대상으로 '나를 알Go, 공부를 알Go' 학습캠프를 실시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학습캠프는 '선생님의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업전략,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복습방법, 기억전략, 집중력 향상기술' 등 4가지 주제로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과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는 자녀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코칭 대화법을 익히고,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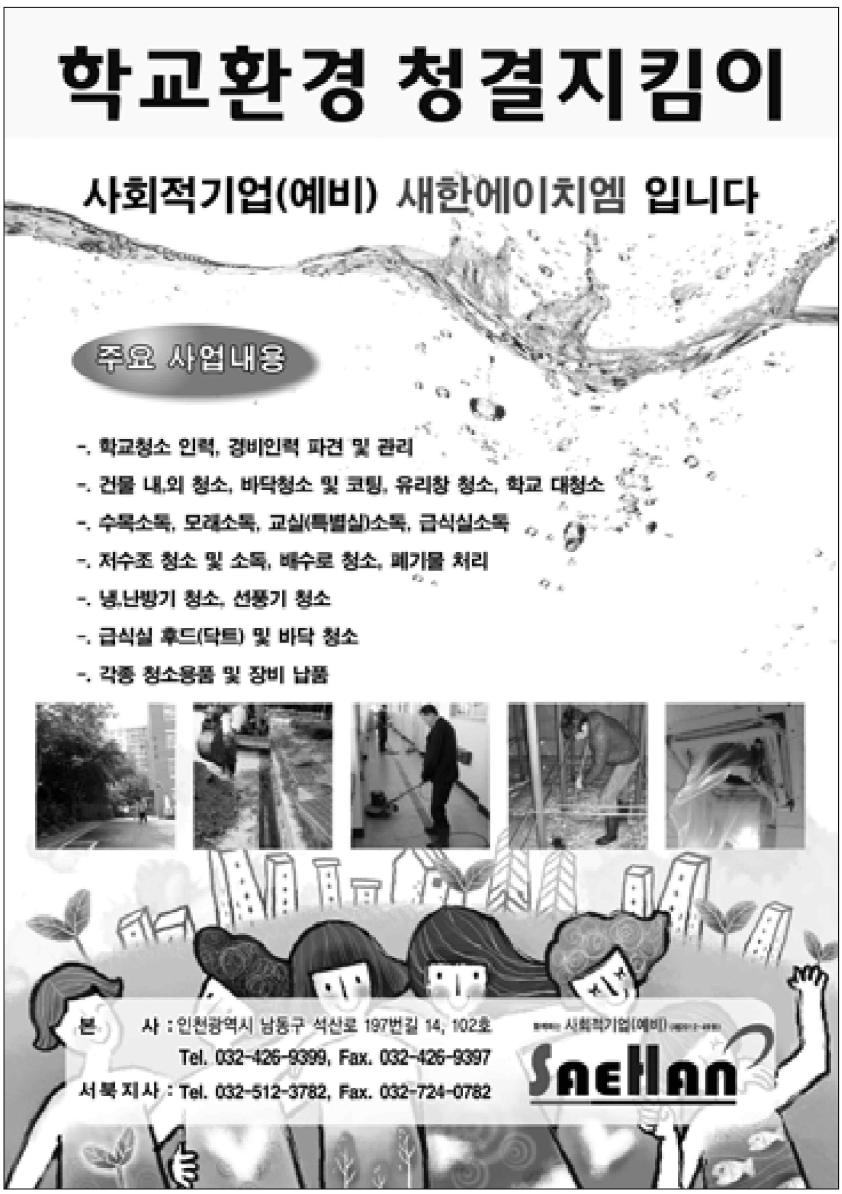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26일 한차례 더 학습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하게 탈바꿈 시킨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U-City'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원도심(구도심)까지 확대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스마트하게 탈바꿈 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지역과 원도심지역간의 정보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광대역자가통신망, U-공동체 에너지관리, U-체감서비스 등 총사업비 320억원 규모의 원도심 U-City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U-City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소요가 없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민투법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안공고를 통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U-City 건설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U-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U-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서비스의 시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U-공동체에너지관리서비스는 관리단지의 전력량을 원격으로 수집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사용자 전기절감 유도를 통해 전기료 절감은 물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